

국·외·소·식

호주인 25% “가족 중 가장 중요한 일원은 애완동물”

호주에서는 개와 고양이 등 집에서 기르는 애완동물을 가족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원으로 보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다고 호주 신문들이 3월 31일 보도했다.

신문들은 호주의 한 애완동물 보험업체가 조사한 자료를 인용, 가족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원으로 애완동물을 꼽은 사람이 4명 중 1명꼴로 나타났다면 이들은 배우자나 부모보다 오히려 고양이나 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호주에서는 애완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보험이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문들은 애완동물 보험업체인 ‘페트슈어’가 호주인 4천여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 1이 자신의 건강을 돌보는데 쓰는 시간과 돈 보다 더 많은 양의 시간과 돈을 애완동물들에 쓰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페트슈어의 손 레브톤 사장은 많은 사람들이 애완동물들과의 감정적 유대 때문에 자기공명 단층촬영(MRI)이나 레이저 광선 수술 등 통상적으로 사람들에게만 사용하는 의료기술을 동물에게도 주저 없이 사용하며 많은 돈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시간, 돈, 정성을 온통 동물에 쏟아 붓고 있는 데 보험을 안 든다는 게 이상하지 않겠는가”고 반문하며 동물 보험의 성장 가능성을 밝게 내다봤다.

그는 동물 보험은 지난 2000년에 처음 호주에 나타났다면 지금은 호주에 있는 3천 780만 마리의 개와 243만 마리의 고양이들 가운데 1% 정도가 건강 보험에 가입돼 있다고 밝혔다.

호주내 가정의 3분의 2가 애완동물을 기르고 있으며 동물을 키우는데 들어가는 비용도 크게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으로 개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38%, 고양이를 기르고 있는 가정은 25% 정도 되며 이들 가정이 애완동물을 위해 지출한 경비는 총 46억 2천만 달러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뉴질랜드 오클랜드> 고한성 통신원(koh@yna.co.kr)

2007년 3월 31일

美-中 펫푸드 리콜 마찰

FDA “중국산 밀단백 오염”, 中 “사실과 다르다”

미국과 중국간에 펫푸드(애완동물사료) 리콜을 둘러싼 마찰이 빚어지고 있다.

북미시장의 주요 펫푸드 제조업체 메뉴퍼드가 자사 제품을 먹은 최소한 15마리의 고양이와 개가 잇따라 죽고 몇백마리가 아픈 것과 관련해 지난달 모두 6천만 캔과 봉지의 펫푸드를 리콜하면서 문제가 시작됐다.

실제 피해를 입은 고양이와 개 등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미 식품의약국(FDA)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3월 30일(이하 현지시각) 메뉴푸드에 밀단백질을 공급한 미국 수입업체를 조사하면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토록 조치했다.

이와 관련해 문제의 밀단백질을 미측에 공급한 중국기업 ‘쉬저우 안잉 생명공학개발회사’는 자사 밀단백질에 유독성 물질이 함유돼있다는 지적이 “소문에 불과하다”면서 FDA를 강력히 비난했다.

쉬저우 안잉사는 밀단백질에 멜라민 등의 유독성 물질이 들어있다는 FDA 지적이 “사실과 다르다”면서 필요하다면 미 당국과 함께 조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FDA의 지적을 받은 미국 수입업체는 3월 30일자로 중국으로부터 수입을 전면 중단한 상태다.

또 메뉴푸드 외에 문제가 된 중국산 밀단백질을 함께 공급받아 펫푸드를 만들어온 힐스 펫 뉴트리션과 퓨리나 펫케어, 델몬트 펫 프로덕트 등 다른 유명 펫푸드 메이커들도 잇따라 일부 제품을 수거했다.

캐나다에 본사를 둔 메뉴푸드사 관계자는 쉬저우 안잉과 비즈니스를 끊었다면서 피해를 입은 동물의 주인들에게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FDA 관계자는 문제의 밀단백질이 사람이 먹는 식품에도 들어갔을지 모른다는 우려에 대해 “그랬을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메뉴푸드 펫푸드 등은 월마트와 세이프웨이, 크로거 및 아홀드 USA 등 유수의 북미 식품 체인망을 통해 판매돼왔다. 메뉴푸드는 앞서 자사 펫푸드 리콜을 발표하면서 지난해 12월 3일에서 지난달 3일 사이 제조된 제품이 대상이라고 밝혔다. 선재규 기자(jksun@yna.co.kr)

2007년 4월 4일

美 알래스카, 늑대 잡아오면 150달러씩 준다

미국 알래스카주(州)가 천적 개체수 관리를 위해 늑대를 잡아오는 사람에게 1마리당 150 달러씩 지급기로 했다고 3월 22일 캐나다 통신(CP)이 보도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수렵인과 수렵안내인들이 지정된 5개 지역에서 늑대를 사살한 뒤 다리를 잘라 제출하면 150 달러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덴비 로이드 알래스카주 수렵·어업부 장관은 “이번 프로그램은 순록과 무스 개체수를 보호하기 위해 천적을 줄이는 것”이라며 “제출된 늑대의 왼쪽 앞다리는 동물표본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물학자들은 4월30일까지 계속되는 해빙기에 400~600마리의 늑대 도살을 목표로 잡고 있다.

알래스카 주정부는 전에도 늑대 도살을 시행한 바 있으나 당시에는 시가 200~300 달러의 늑대 모피를 갖도록 했으며 모피에 덧붙여 보상금을 제공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 민간단체인 ‘야생동물의 보호자’의 칼라 더튼 대표는 “보상금 지급은 현대 야생동물 관리에서 가장 난폭한 방식”이라며 “무분별한 불법 사냥이 횡행할 것이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캐나다 밴쿠버> 오룡 통신원(oryong@yna.co.kr)

2007년 3월 23일

국·내·소·식

AI 등 인수공통전염병 협동연구 본격 착수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 차세대고속열차 개발계획 등 5개 안건 확정

조류인플루엔자(AI)와 부루세라증, 공수병(광견병) 등 3개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의 발병 원인 규명과 백신 개발을 위한 협동연구가 정부 차원에서 본격 추진된다.

정부는 3월 15일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우식(金雨植) 부총리 겸 과학기술부장관 주재로 제 23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인수공통전염병 범부처 R&D 추진전략안 등 5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AI 등 3개 전염병의 발병 원인 규명과 백신 개발 등의 협동 연구를 본격 지원하기로 하고 올해 20억원에 이어 내년에도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인수공통전염병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체감염 백신개발 등 해당부문의 R&D가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사람을 치료하는 의사와 동물을 다루는 수의사가 상호 분리돼 효율적인 대응이 미흡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수공통전염병 R&D 협의회를 구성, 발병기전과 모의 백신개발 등의 연구에 나서는 한편 인수공통전염병에 대한 협동연구 체계를 구축해 인의(人醫)·수의(獸醫)간 공동연구 및 정보공유를 촉진할 계획이다.

이날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에서는 또 ▲국가 연구개발(R&D)사업 공동보안관리지침 제정안 ▲문화기술(CT) 육성방안 ▲농업유전 자원 보전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차세대 고속철도 기술 개발사업 추진계획 안도 확정됐다. 이정내 기자(jnlee@yna.co.kr)

2007년 3월 15일

보은 동물보호교육센터 15일 준공

대구지역 동물보호단체인 한국동물보호협회는 충북 보은군 수한면에 신축중인 보은동물보호교육센터가 최근 완공됨에 따라 4월 15일 준공식을 가질 예정이라고 4월 2일 밝혔다.

동물숙소와 관리동, 동물운동장 등으로 구성된 1천 700여평 규모의 이 보호소에는 5월부터 500여 마리의 개와 고양이 등 유기동물이 수용될 예정이다.

협회는 앞으로 전국 초·중학교 등과 연계해 이 보호소를 어린 학생들이 동물들과 놀며 자연스럽게 생명에 대한 사랑을 싹틔우는 장소로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한국동물보호협회는 1982년 피부병에 걸려 하수구에 버려진 새끼 고양이를 구한 인연으로 유기동물 보호에 나선 금선란 현 협회장 주도로 지난 1991년 설립돼 16년 동안 지역내 유기동물을 조직적으로 구조·보호해 왔다. 황철환 기자(hwangch@yna.co.kr)

2007년 4월 2일


☞ 조계종 “서울대공원서 첫 동물 천도재”

죽은 사람의 영혼을 극락으로 보내기 위해 치르는 재인 불교 천도재(薦度齋)가 처음으로 서울대공원 동물들의 원혼을 위해 치러진다.

대한불교 조계종 중앙신도회는 4월 5일 경기도 과천 서울대공원 동물원 남아메리카관 뒤편 동물 위령비 앞에서 죽은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기 위해 천도재를 봉행한다고 3월 21일 밝혔다.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 관계자는 “조계종 측에서 동물원에서 죽은 동물들을 위해 천도재를 봉행하기를 원한다고 제안해 와 구체적 지원 범위와 규모 등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천도재는 죽은 이들의 영정 앞에 향을 피우고 재를 주관하는 스님이 영가(靈駕)를 위한 법문을 외우면 참석자들이 절을 하며 명복을 비는 순서로 진행된다.

서울대공원은 매년 5월 1일 사육사와 수의사 등 직원들이 모여 죽은 동물들을 위해 간단한 묵념 의식을 갖는 위령제를 거행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sungjinpark@yna.co.kr) 

2007년 3월 21일

